

봄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pring | VOL. 2

새봄에 길을 걷다.

길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 봄, 당신에게 가는 길 하나 새로 내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새봄에 길을 걷다

겨우내 쌓였던 잔설이 녹아 연초록 새순을 깨우면
마음의 빗장을 열며 살포시 봄이 다가옵니다.
영원을 꿈꾸는 찰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때로는 아프고 수줍게 옵니다.
세상이 새봄입니다.
세상이 새길입니다.
길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 봄, 당신에게 가는 길 하나 새로 내어
때론 편편하게 곧은 직선의 길이 아니어도
울퉁불퉁 길을 천천히 걸어도 보겠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보다 같이 걸어갈 내일을 보겠습니다.
언 발이 풀리고 힘이 들어갑니다.
나눔으로 함께 걷는 길
공감으로 함께 걷는 길
그 길 위에 희망으로 함께 갑니다.

04 Zoom in Dongguk DUMC NEWS

08 Zoom in Dongguk DUMC 인사동정

09 Zoom in Dongguk 나눔의 동행

10 Good Doctor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

13 Introduce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미용성형센터

14 Global_1 세상을 향한 희망 나눔

16 Global_2 카자흐스탄에서 날아온 인연

18 Column_1 두통, 치료 가능한 병인가요?

20 Column_2 계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구안와사

22 Essay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24 Travel 동백향 따라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26 Taste 봄 향기 가득,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약이 되는 절밥이야기

28 동국보감 건강장수를 위한 명약, 경옥고(瓊玉膏)

30 Smart Tip 나와 우리를 지키는 예방접종

31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5 진료일정 안내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pring | VOL. 2

Name Story
길은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길동무와 함께 하여야
더 행복합니다.
휘청일 때 손 내밀어주고
힘들면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나란히 걷는 이가 있다면,
한걸음 내딛는 발길이 한걸 가뿐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발행인 이진호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5년 3월 1일 (통권 2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

DUMC NEWS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고관절치환술, 간암 수술 진료량 평가와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고관절치환술·간암 진료량 평가와 폐암·유방암·대장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진료량 평가는 해당 진료의 수술 건수와 사망률, 합병증과 같은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본원이 고관절치환술·간암치료에서 수술건수도 많고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난이도 수술에서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유방암과 대장암은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평가를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여 평가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도로 대한민국 뇌영상 표준 제정 한국인 표준 허혈 뇌지도 완성

신경과 김동익 교수 연구팀은 뇌의 혈류 순환 장애에 의한 뇌허혈 손상정도를 등급화한 한국인 허혈 뇌지도를 완성했다. MRI촬영 후 본 허혈 뇌지도를 이용하면 만성 허혈성 뇌손상 정도(크기·위치)가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기준으로 100명 중 몇 등에 해당하는지 알려준다. 특히, 연령대별로 제공되는 허혈 뇌지도를 참조하면 만성 허혈성 뇌손상 관련 '뇌 건강나이'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10개월간 첫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전국 1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2,699명 환자를 대상으로 약 6만장 분량의 뇌 MRI 사진과 환자 개개인의 뇌혈관 위험인자 분석 등을 거쳐 약 5년 만에 허혈 뇌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성과는 교신저자 신경과 김동익 교수/제1저자 신경과 류위선 교수를 포함한 32명의 저자가 참여하였으며, 미국뇌졸중학회 학술지인 스트로크(Stroke) 12월호에 게재되었다.



환자 안전 시스템 기반 2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성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2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검은 지난 2011년 1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1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이후 2회차 평가로서 한층 강화된 평가기준에 맞추어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그리고 환자 안전 시스템을 확인했다. 이준학 조사팀장 외 총 5명의 조사위원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13개 장 91개 기준 537개 항목에 대해 인증 조사기준과 병원 규정에 맞춰 수행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으며, 개별추적조사 및 시스템추적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증원 조사팀장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증조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치료까지 책임지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모습에서 많은 환자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진료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제26회 포교대상에서 원력상 수상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원력상(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연우회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개원한 2005년도 설립한 이래 해외 의료봉사,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승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의 맞춤형 의료봉사를 시행함으로써 불교포교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단체로는 단독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와 나눔 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국불교 발전과 포교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대표단,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방문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대표단 일행이 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한의학 치료과정을 견학하기 위해 12월 10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한방치료의 특징과 산업재해 시 러시아에서도 한의학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에서 적용되는 보험치료와 비 보험치료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4일에는 '2014 국제 한의학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8개국 대표 11명이 일산한방병원을 방문하여 한의학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난방비 및 연탄 지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은 12월 23일 식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저소득층 11가구에 난방용 등유 200L 사용권(23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사회사업실이 소외계층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서 도서바자회(협찬 : 한양문고)를 진행하여 기금을 마련했다. 한편,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에서도 12월 20일 고양시 저소득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식사동과 풍동 지역 10가구에 연탄 3,000장을 지원하는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한 바 있다.

본원은 관내 주민들을 위해 의료지원, 건강강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도 펼치고 있으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QI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은 1월 28일 QI경진대회를 열어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고객 만족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서에 포상했다. 환자안전과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QI우수사례 10개 팀이 구연발표를 했고, 13개 팀이 포스터 발표를 했다. 포스터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직원식당 앞에 게시하여 전 교직원과 공유했다. 이날 대상은 '정확한 환자 확인 이행 및 Time Out 시행 향상을 위한 활동'을 발표한 진료부, 간호부, 검사실, 치료실 등 연합팀인 '묻고 또 묻고'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채석래 병원장은 “다학제간 팀이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에서 교직원들의 인화단결과 무한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뇌정위 수술 시스템 도입

신경외과는 '뇌정위 수술 시스템'(Leksell Stereotactic Neuro-surgery System)을 도입했다. 본 장비는 CT, MRI와 수술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뇌 병변의 정확한 3차원적 좌표를 계산하여 조직 검사 및 정위적 혈종 제거술 등이 가

능한 의료장비이다. 또한, 심부 뇌 조직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경외과와 신경과의 중요 진료 영역인 운동장애 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병원 신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2014년도 병원신입평가 현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병원신입평가는 당해년도 현지평가 성적이 80% 이상인 병원은 병원신입연한 3년(서류심사 2년), 70% 이상인 병원은 병원신입연한 2년(서류심사 1년)으로 병원신입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정하게 된다. 또한 조직관리, 시설안전관리, 환자안전관리, 진료지원, 특수진료지원, 수련행정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평가된다. 본원은 이번 신입평가에서 병원신입위원회가 정한 제반 기준 및 병원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시설안전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진료지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3년 뒤인 2017년 현지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7,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15세 미만 유소아 급성 중이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것으로, 세부 평가항목은 항생제 투약 일수율, 성별·연령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율, 중이염 상병비중(중이염 내원일수) 등 총 5개 항목이다.

본원은 5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처방율을 보 여 2012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항 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세균이 증가될 수 있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을 줄여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라고 전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12월 10일 최근 에볼 라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경계령이 내려진 가 운데 의료기관의 적절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환자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에볼라 바이러스 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비 상운영 위기대응팀 1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이송경로, 환자 진료 및 격리, 검체 채취 및 수송, 환경관리(의료폐기물 및 린넨), 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등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무료 건강검진 및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12월 10일 경주시 장애 인 종합복지관(관장 성타 스님) 1층 강당에서 장 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재활의학과 류기형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박병찬 교수, 법사 무구 스님, 지영한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5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아울러 불교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하여 더욱 훈훈한 정을 나누 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12월 16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상 호 발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자원봉사 및 기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관계자 초청 경북 의료관광 팸투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12월 23일~12월 25일 국제힐링센터에서 중 국 의료 및 여행사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 로 경북 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경북 의 우수한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체형 등의 기회를 통해 경북 의료관광의 적극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관계자 14명은 국제힐링센터를 방문하여 힐링센터 소개 및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QI활동과제 및 CI경진대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11월 20일 QI활동과제

및 C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구연, 포스터, 서면 등 총 22개팀이 참가하여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QI자로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열기 가득한 경 진대회가 되었다. 이동석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한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교직원들의 협조로 지속적인 질 향상 을 이어나가자.”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경진대회는 여러 교수와 간호부의 찬조를 받아 준비한 푸짐한 경품과 행운권 추 첨의 시간을 가져 경진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 겁게 달궜다.



안과 연간 외래환자 2만명 돌파

안과 외래에서는 12월 31일 2014년 한해 외래 환자 2만명 돌파기념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 행사는 경북지역의 거점병원으로 거 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과의 한해 외래 환자 21,000여 명, 수술건수 2,300여 건의 실 적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 실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개원 18주년을 맞 아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26일부터 4박 5일간 해외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한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각 직종 별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대만의 한 · 양방협진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운영형태 및 한 · 양방

협진 사례 등을 견학하고 타이페이 및 화롄 일 대의 관광지 등을 둘러봤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이규욱 팀장은 의료 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병원의 비결은 환자의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활동, 새로운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새로운 사례 체험 을 통한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번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송노인복지관 무료 진료 실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11월 26일 황송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무료 진료에 참여한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7명의 의료봉사자는 진료 받는 모든 분들에게 혈압측정 및 침, 뜸, 부항치료와 필요 시 한방약 을 처방했다. 이날 행사는 금용감독원의 금용사 량방버스 봉사도 함께 이뤄졌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 인들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질 향상, QI경진대회 성료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12월 19일 병원 강당에서 2014년도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진 등 9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QI경진 대회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질 향상 을 주제로 총 7팀이 활동내용을 구연발표로

진행됐다.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낙상, 투약 오류, 욕창예방을 통한 환자안전 간호'를 주제 로 발표한 간호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장현 병원장은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 감사 드린다.”며 “내년 에는 더 성장하여 지역민들에게 진정으로 신뢰 받는 병원이 되자.”고 다짐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오상우 교수,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 90억 원 수주 성공!

동국대학교 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진호) 의학과 오상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가 ‘AAL(Ambient Assisted Living, 전천 후 생활보조)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거주 자에 적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 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사업 으로 5년간 정부 출연금 67억 원과 민간출연금 23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이른다. 오상우 교수 연구팀은 본 연구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Active Aging index’를 개발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그리 고 Active Aging(신체적, 정신적인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맞추어 공간 내에서 전천 후로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주택 기반의 헬스케어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Global Leader Medical English Program 실시

동국대학교 의학계열(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 과)에서는 재학생 63명을 대상으로 1월 26일 부터 2월 20일까지 약 4주간의 일정으로 단기 의료연수 프로그램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 이고 대학교(이하 UCSD)에서 실시했다. 이번 단기 의료연수 프로그램은 병원 견학 및 투어, 현지 문화체험 및 의료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이진호)은 “세계적인 보 건인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7회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공동교육 워크숍 개최

제7회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공동교육 워크숍 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동국대학교 의학전 문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1월 29일~30일 양일 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 에는 동국대학교 이진호 의무부총장과 남경수 의과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1개 대학 교수, 대

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의과학 분야 국제동향, 의과학 전공 특강 및 대학원생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공동 워크숍은 의과학자로서 자질 함양 및 의과학 분야의 최신 지견 습득, 의과학자 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판정을 받았다. 백설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학과장은 “이번 결과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호학과가 국제수준의 간호교육기관으로서 공식 인정 받은 것”이라며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발전과 교원 교육·연구역량의 강화, 간호대학으로 승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UMC 인사·동정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 아시아 최초로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지 편집위원 위촉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지(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편집위원회 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선임되었다.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는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Orthopaedic Research Society) 학술지로 정형외과 기초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로 알려져 있으며, 임군일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논문 선정과 학회지 서문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상의학과 김정숙 교수, 환경부장관상 수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김정숙 교수는 12월 5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석면전문가 세미나’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정숙 교수는 2009년부터 석면 질병 관련 전문 의료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전·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의학계 대내 외에 이 제도를 널리 알려 석면피해자 발굴에 타 의료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수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는 11월 28일과 29일 제주국 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4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본 논문은 ‘Learning curve of capsule endoscopy(Clin Endosc, 2013 Nov; 46(6):633-6)’의 제목으로 캡슐 내시경 판독의 질 관리를 위해 판독이 숙련될 때까지 필요한 조건에 대한 연구로써 주저자로 활동한 임윤정 교수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피부와 신호승 교수, 스티펠 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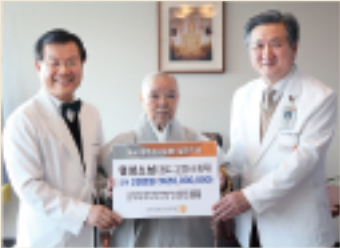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피부과 신호승 교수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선정하는 ‘제15회 스티펠 학술상: 연구비 부문’을 수상했다. 스티펠 학술상은 대한피부과학회에서 50세 미만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 계획서, 연구 업적 및 학회 기여도를 심사하여 1년에 한번씩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신호승 교수는 뛰어난 연구업적과 국내 피부과학 기초연구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여 스티펠 학술상을 수상했다.

비뇨기과 서영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IBC와 마르퀴즈 후즈 후 동시 등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비뇨기과 서영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비뇨기분야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 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국제인명센터(IBC)’와 ‘마르퀴즈 후즈 후’에 동시 등재되었다. 영국의 세계적 인명정보기관인 국제인명센터(IBC)는 21세기 뛰어난 지성 2,000인 2015년 판(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5)에 등재되며, 마르퀴즈 후즈 후는 인더월드 2015년 판에도 등재된다. 서영진 교수는 비뇨기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로서 많은 연구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눔의 동행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운문사 회주 명성 큰스님, 동국대학교의료원에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 도량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큰스님이 1월 13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불교의학연구소에 각각 1천만 원씩, 발전기금 2천만 원을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전달했다. 명성 큰스님은 전달식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의료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매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전달받은 이진호 의료원장은 “스님께서 보여주는 무주상보시의 실천은 의료원의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불교병원의 발전과 불교의학연구소 연구기금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병원 건립 당시부터 병원발전기금으로 약 1억여 원을 기부한 명성 큰스님과 운문사 스님들의 큰 뜻에 보답하기 위해 본원 중강당을 명성 큰스님의 법명을 딴 ‘명성세미나실’로 명명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석림사 보각 스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석림사 보각 스님은 1월 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보각 스님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환우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최선장비로 치료 받는 것이 쾌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스님이 입원치료 중에 다른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나눔을 실천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동국대학교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병원시설 개선과 장비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의평천(慈醫平天)’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 친필 휘호 걸어

중앙승가대학교 서각회 회장 지일 스님은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자비로운 의술로써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는 뜻의 ‘자의평천(慈醫平天)’이란 친필 휘호를 서각 작품으로 새겨 지난 12월 1일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전달했다. ‘자의평천(慈醫平天)’은 불교병원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의 화두로써 큰스님의 휘호에 감사의 뜻과 그 의미를 새기고자 일산병원에 걸어 교·직원과 공유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발전기금 5억원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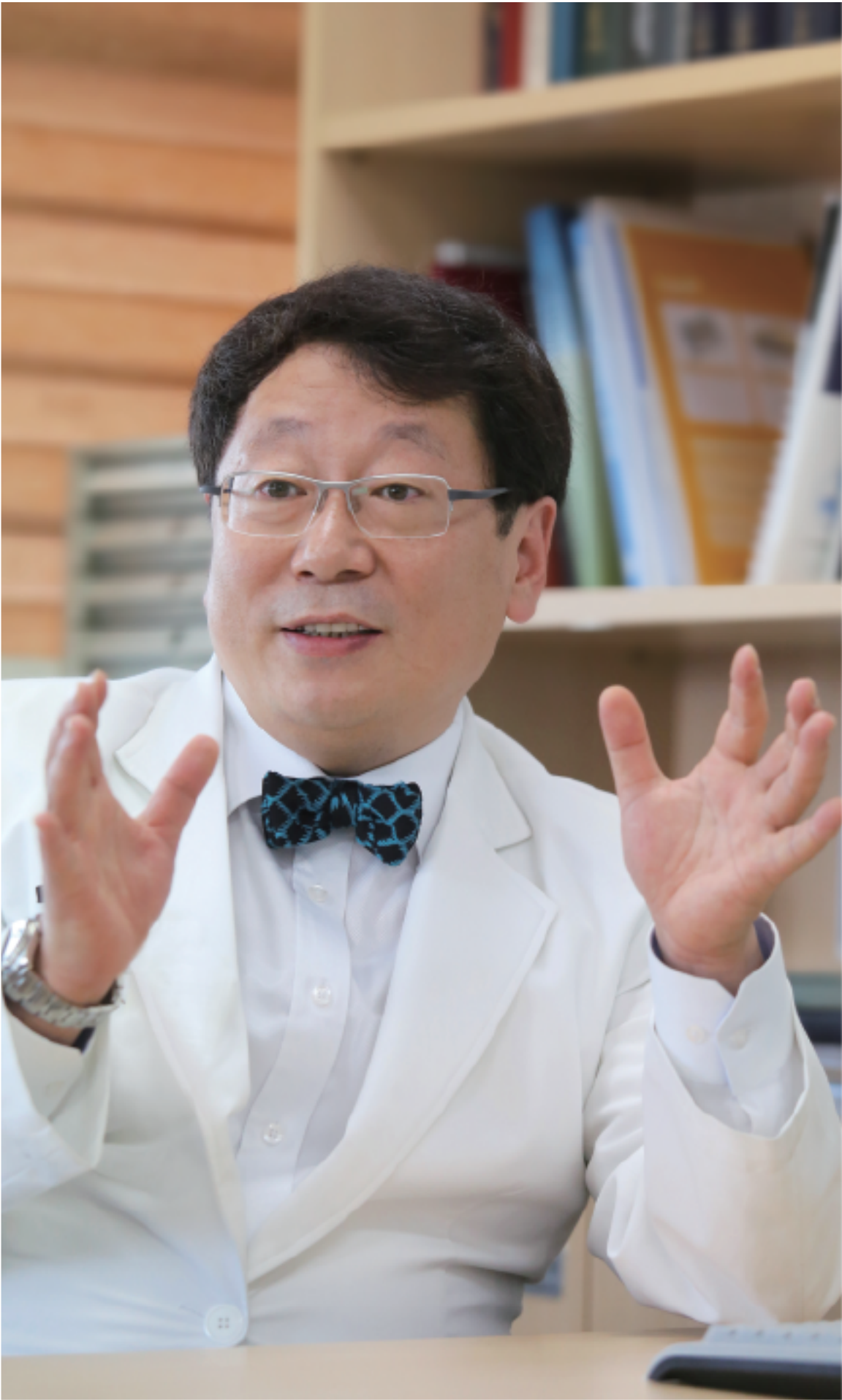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장호석)는 11월 16일 ‘제1회 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약정했으며, 2014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기부하기로 했다. 장호석 동국대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은 “모교와 학과의 발전, 그리고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와 기금 약정을 통해 의과대학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성형외과

정 규 용 교수

“따님이 사교성 있더라, 그지예?
따님은 코 예쁘니까 안 해도 된다.
왜 자꾸 코 수술 한다고 그라노?”
인터뷰를 할 땐 표준어를 꼬박꼬박 쓰던 그의 입에서 구수한 사투리가 쏟아졌다. 치료를 받는 어르신도 그와의 딸내미 얘기, 한동안 미뤄뒀던 집안일 얘기에 눈꺼풀이 처져 수술한 실밥 푸는 아픔은 잠시 잊은 듯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하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나비넥타이는 그를 더욱 친근하게 한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예”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올 것 같다. 성형외과에서는 소위 ‘숨씨’보다는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의 믿음이 몸에 밴 까닭이다.



그는 환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환자가 왜 수술을 하려는지, 어느 부위를 원하는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환자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야죠.”

인생 중반, 다른 길 가야할 때
2013년 10월 동국대경주병원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 그는 울산에서 17년 동안 개원의로 지냈다. 그냥 개원의가 아닌 ‘아주 잘나가는’ 개원의였다. 남들 부러워할 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손에 거머쥐었으니, 그대로 남은 반백년을 평탄하게 살아도 됐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전공의 때 제 인생을 설계해 본 적이 있어요. 스무 살까지는 내 삶이되 내 삶 같지 않았죠. 그로부터 15년간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경험을 쌓는 시기라고 봤어요. 다시 15년은 내 역할을 만드는 때, 그러면 인생 반백년이더라구요.” 그후엔 그동안 쌓은 것을 베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15년이 다시 지나면, 여생은 아내를 위해 살겠노라는 다짐도 했다. 꼭 신 살이 되던 해, 그의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 듯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2013년 6월 개원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의 중심축이 될 성형외과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후학들에게 전수할 기회라고 여겼다.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기적으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그의 ‘합’이 잘 맞았다. “오십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해뒀서인지 가족과 지인들도 그의 결정에 탄지를 걸지 않았다.



실력 못잡게 환자와의 관계 중요
“그, 나비넥타이 의사요.” 정규용 교수는 환자들 사이에서 ‘나비넥타이 의사’로 통한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첫 출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고집하는 나비넥타이 때문이다. 정 교수를 급하게 찾아오는 환자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젠 요긴한 표식이 됐다. “새로 온 의사라 낯설 테니 이름을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방법으로 생각해냈죠. 치료할 때 긴 넥타이가 환자 얼굴에 닿으면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요.” 그는 한때 정신과 전문의를 꿈꿨다. 대학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연극치료에도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 대신 적성을 찾았다. “성형외과 의사는 아름다움을 통해 기쁨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사람이 수술 후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걸 보면 보람 있죠. 그런 면에서 성형외과란 외과수술과 정신치료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일까. 그는 환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사실 개원의 생활 17년 동안 불만 없는 환자가 한 명도 없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물론 환자와 얼굴을 붉히는 일조차 한 번도 없었다. “환자가 왜 수술을 하려는지, 어느 부위를 원하는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환자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야죠. 그렇게 대화가 오간 환자들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죠.” 어찌면,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난 불편한 내면을 다독이는 그의 진심을 환자들도 눈치챈 까닭일 게다.

건강한 아름다움이 가장 자연스러워

그는 성형외과 의사를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외모 문제로 마음이 아픈데 수술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번은 얼굴에 큰 점이 있는 9세 남자 아이를 치료한 적이 있다. 친구들 놀림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였다. ‘외모썸이야 마음먹기 달렸다’는 부모의 설득에도 아이는 수술을 원했다. 정 교수는 아이에게 수술할 때 참아 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줬다. 겁을 먹을 법도 한데, 아이는 그래도 하겠다고 나섰다. 정 교수는 아이의 뜻을 따라 주는 게 좋겠다고 부모를 설득했다.

최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성형수술 환자 중 20%는 남성이다. 놀랄 만한 수치다. 하지만 시대가 그렇다. 다만, ‘아쉬움은 해결하되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그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움의 다른 말이다. 성형수술이 미용쪽으로만 강조되는 것 또한 그는 경계한다. 경주의 경우 외상환자가 많다. 관광지다보니 들뜬 기분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아서다. 큰 공업도시인 울산과 포항에 있는 업체들의 하청업체도 경주에 꽤 된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는 얘기다. 그런 환자들에겐 성형수술이 제2의 인생길을 터주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을 접지 않는 긍정 에너지맨

그는 요즘 행복하다.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고 행운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내내 그에게선 긍정의 에너지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지난 삶의 궤적을 쫓다보면 그런 일이 우연한 행운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대학 땀 연극반 활동을 하며 삶에 대한 고민을 늦추지 않았다.



개원의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무대에 서는 꿈을 놓지 않았다. 영화 ‘기타가 웃는다’, ‘친구2’에 카메오로 출연한데 이어 올 5월 개봉예정인 영화 ‘극비수사’에도 그는 얼굴을 내보인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시간 날 때마다 영화판을 어슬렁거린 덕분’이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 성악 기초부터 배워 2년여의 준비 끝에 독창회를 열기도 했다.

2002년부터는 생태환경에 관심을 뒤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두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역사와 자연환경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생태환경모임 ‘반딧불이’를 이끌었다. 그에게 러브콜을 해온 여러 대학병원 중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선택한 데는 반딧불이 활동을 하면서 자주 오갔던 경주에 대한 애정도 한 이유였다. 4~5년 전부터는 ‘그린 닥터스’를 통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부터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해외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끝없는 호기심과 식지않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고자 하는 일을 꼭 해내는 그가 요즘 열정을 쏟는 것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가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태는 일이다. 실제로 그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곳 성형외과는 수술을 받으려면 현재 2개월 정도 기다려야할 만큼 대기환자가 많다.

“인생 후반에 원하던 곳에 있고, 그동안 쌓아온 임상경험을 학교와 병원에서 마음껏 풀어낼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더 활기찬 병원으로, 국제힐링센터가 의료관광과 힐링 메카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



성형외과 정 규 용 교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부산한미병원 과장,
울산 정앤정 성형외과 원장

전문진료분야

유방성형, 안면윤곽, 3차원 코성형,
비중격 수술, 주름성형, 눈성형 등

진료시간

오전 » 화
오후 » 수, 금

문의

성형외과 외래 054·770·1460~1

취재 편집위원회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나는 곳,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내 미용성형센터

미용성형에서 흉터 및 기형으로 인한 성형까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세계적인 역사문화 및 휴양도시 경주!

힐링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천년 고도의 경주에서 2013년 6월 오픈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는 지역주민 및 국내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힐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 속에 있는 미용성형센터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심적 치유를 도모하고 신체의 구조적인 변형이나 기형을 수정하고 기능상의 결함을 교정 치료하는 재건성형과 미용을 목적으로 얼굴이나 체형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성형이 시행되고 있다.

미용성형 분야는 요즘처럼 젊게 보인다는 것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수술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미용성형분야가 지향하는 바는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문 교수진

성형외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으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갖춘 각 성형 분야별 전문 교수진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신 마취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직접 시행하여 안전한 시술로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추었다.

독립된 공간으로 원스톱 시스템 진료

미용성형센터는 미용성형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센터 내 수술실이 갖춰져 있으며, 수술 후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실과 VIP실도 갖춰져 있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고객만족 시스템 운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수술 전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과정을 통하여 수술 만족도 증대 및 수술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용성형센터 문의 054·770·1460~1461



신혜경 미용성형센터장(성형외과 교수)은 최근 미용성형 수술이 급증하면서 보다 안전한 수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기술과 안전한 수술 및 철저한 환자관리시스템으로 보다 신뢰받는 병원, 다시 찾고 싶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미용성형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나마스떼!!

네팔 의료문화봉사

세상을 향한 희망 나눔



네팔은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곳으로,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봉사활동 지역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카카니(Kakani) 산악마을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 등반 도중 실종된 고(故) 박영석 대장의 기념비가 있어 한국인에겐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 수도에서 가까운 편이지만 해발 2073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국외 여행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또한 교통편이 매우 불편해 의료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해외봉사 때 세관 통과시 상당 부분 준비된 약품이 압수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주병원 의료봉사팀은 조금이라도 더 환우들에게 의약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네팔은 의료진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행위로 인한 규제가 까다로웠으나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다.

드디어 7명의 정예인원으로 11월 14일 새벽 1시 약사전 부처님께 출발 인사를 드리고 심야 버스에 몸을 싣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불교회(지도법사 무구 스님)가 주최하여 운영된 해외의료봉사팀이 올해로 벌써 8년째를 맞이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작년에 이어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해외봉사단 일원으로 의료취약국가인 네팔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떠났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3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무료진료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도 소개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다지고 왔다.

뿌연 안개 속에 도착한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번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반 걱정반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네 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번 네팔 봉사에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모였다. 압수된 물품도 없었으며, 우연히 엄홍길 산악대장도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공항 밖은 약간 더운 바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리 숙소로 이동하여 각자 소개 및 행사 일정에 대한 설명 후 내일부터 있을 봉사 준비를 하며 네팔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6시부터 서둘러 준비한 물품을 버스에 가득 싣고 약 1시간 30분 정도 꼬불꼬불한 비포장 길을 한없이 곡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래로 보이는 아득한 풍경에 다들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도착한 카카니. 조용한 시골 풍경으로 발 아래 송전탑이 보이는 높은 지대의 마을 보건소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텅 빈 보건소를 가득 메웠다. 진료실과 약국마다 도움을 청하는 환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지 행정팀 및 통역 봉사자들과 미팅 후 번호표를 나누어 주면서 진료는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맨발에 고유 의상을 입고 왔으며, 주로 고산 지역 농사에 종사하므로 만성 요통 및 관절염, 위장병은 기본.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또한 피부염증을 치료하지 않아 피부궤양, 화농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간단한 약품만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을 보건소는 평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중병이 아니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린 학생들은 영양결핍, 중이염, 결막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봉사기간 내내 드레싱을 해주고 연고 및 항생제 주사를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약봉지를 들고 나가는 환자들에겐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졌다. 치약과 칫솔, 수건 등 세면도구를 나눠주고 눈이 어두운 노인들에겐 돋보기 안경을, 마을엔 백화백의 연꽃을 그린 수목화로 화기에애한 풍경이 펼쳐졌다.

봉사 둘째 날, 어제의 진료 소문에 새벽부터 600여 명의 환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결국 마을 청년회, 경찰관이 동원되어서야 겨우 기본 질서를 갖출 수 있었다.

침, 땀, 부항 등의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4명의 의료진과 약사, 간호사 등 모두는 밀려오는 환자들로 동분서주하며 신출귀몰한 활약에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네팔말로 주사는



수이, 안경은 자스마라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수이, 자스마가 난립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과 원활하지 못한 통역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숙달된 후론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박수가 나왔다.

진료 삼일째 되는 날 소문을 듣고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를 아주머니와 남편이 함께 감기몸살로 인한 탈진 상태로 찾아왔다.

다행히 적절한 처방으로 급성기를 넘기고 이를 동안의 치료 후 상당히 호전되어 감사하다고 연이어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봉사활동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님새 동안 험한 산길을 오가며 반복된 뻘뻘한 일정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모든 봉사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번 봉사에 함께한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진료팀, 학교팀을 오가며,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고 주민들에게 직접 선물을 챙겨 주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시설 보완팀은 학교 외벽 도안 후 페인트를 칠하여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학교를 선물해주었고, 미용팀은 낫설어 하던 학생들과 점점 친해져 머리를 한국 최신 유행 스타일로 바꿔주며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

천진난만한 어린 학생들과 주변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주민들의 모습에 네팔의 높은 행복지수를 몸소 느끼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 가까운 곳에 트레킹을 가서 설산에 덮인 에베레스트 산봉우리를 볼 기회가 있었다.

엄청난 위용에 스스로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동국대학교 동문인 고(故) 박영석 대장의 추모탑을 방문하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인근 학교에 컴퓨터, 축구공, 의류 등의 선물을 기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짧은 5일간의 봉사 시간 내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한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한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을 받고 왔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모두 이번 봉사 활동은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힐링하는 계기가 된 좋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뭉치자고 약속했다. ●

Hi! Samgod!

두 번의 만남과 이별

카자흐스탄에서 날아온 인연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앓는 삼갓

6남매 중 막내인 삼갓은 선천적 4중심장기형(4개의 증상이 함께 있는 심장질환)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생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삼갓이 숨쉬기 힘들어하고 얼굴빛이 점차 어두워졌지만, 카자흐스탄에서도 워낙 낙후된 지역에 살다보니 진료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년에 한 번 마을을 찾아오는 이동진료단으로부터 심장에 선천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었다. 어렵게 찾아간 큰 도시 병원에선 몸무게 미달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정형편도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미적거리다 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2012년, 삼갓은 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의 고통은 그 이후 더 깊어졌다. 삼갓이 수술 후 한 달반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것. 삼갓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마침 언론에 보도된 딱한 사연을 접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딸이 도움을 주겠다고 선포 나섰다. 2012년 11월 19일, 권범선 교수는 선진의료기술을 찾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온 삼갓과 그렇게 인연이 닿았다.

한 번의 이별, 두 번의 만남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나타난 허혈성 뇌손상이었어요. 한 번 다친 뇌가 완전히 회복될 순 없어요, 그나마 뇌가 왕성하게 발달하는 3~5세 때 치료하면, 다친 상태로 발달은 가능하죠.” 권 교수는 삼갓이 입원한 석 달 동안 경기에 대한 약 처방과 사지마비 재활치료를 병행했다. 그 사이 카자흐스탄 소아과 의사가 내원해

의사와 환자로 만나는 데는 어떤 인연이 닿아야 하는 걸까. 지난해 11월 말, 권범선 재활의학과 교수는 카자흐스탄에서 날아온 삼갓(5세)을 진료실에서 다시 만났다. 2012년 11월 처음 본지 꼭 2년 만이었다. 의사와 환자의 재회는 사실 달가운 일이 아니다. 환자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권 교수는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렸다. 헤어질 때 이미 예견했던 재회였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론, 멀리 이국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애썼을 삼갓 가족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 마음이 잔해졌다.



치료과정을 지켜봤다.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됐다. 삼갓은 엄마와 눈을 맞추고 무리없이 움직였다. 그래도 권 교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 질환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장애예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예상대로였다. 가벼워진 표정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간 삼갓의 엄마는 2년이 채 안 돼 사색이 된 얼굴로 권 교수를 다시 찾아왔다. 카자흐스탄의 의료환경은 삼갓의 상태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삼갓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첫 내원했을 때와 거의 같은 상태였다. 한국행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삼갓 엄마의 노력으로 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긴 했지만, 이번엔 병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열흘에 불과했다.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음에 또다시 올 수 있으리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삼갓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다.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다가 앉기 시작했고, 미각과 후각도 되찾았다. 권 교수는 이번 입원 기간 동안 삼갓의 엄마를 교육하는 데 애썼다. “안타깝지만, 이 질환은 완치되는 게 아니에요. 삼갓의 엄마도 그걸 알고 있어요. 좋은 의료환경에서 꾸준히 치료와 관리가 돼야 할 질환이지만, 카자흐스탄은 아직 재활치료가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엄마라도 삼갓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삼갓은 지난해 12월 8일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눈가가 내내 촉촉했던 삼갓의 엄마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걱정해주는 이웃들에게 늘 한국과 동국대일산병원에 대해 자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부족한 병원비를 기꺼이 해결해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대한 감사의 말도 남겼다. 권 교수는 한때 선진의료기술을 찾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우리나라 장애우 엄마들을 떠올렸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 삼갓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를 바라죠. 지금으론 다시 한 번 삼갓 엄마의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럴 인연이라고….”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 범 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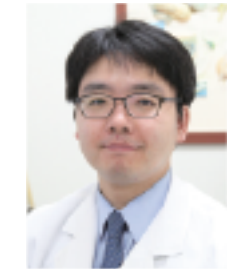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뇌졸중 재활, 뇌손상 재활, 뇌성마비 재활, 근육통, 근전도, 경직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화, 금 오후 » 월, 수

문의 재활의학과 외래 » 031 · 961 · 7460~1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두통, 치료 가능한 병인가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류 위 선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중풍), 두통, 어지러움증,
이상운동, 파킨슨

진료시간
오전 » 월, 금 오후 » 월, 수, 금

문의
신경과 외래 031·961·7200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두통은 신경과 외래를 찾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두통이 발생하면 혹여나 뇌졸중의 전조증상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된다. 실제 외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두통은 심하지 않지만 혹시 뇌졸중의 전조증상이 아닌가하는 걱정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두통의 종류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차성은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집성 두통 등이 해당한다. 특별한 머리 안의 병이 없이 반복해서 두통이 발생한다. 이차성 두통은 뇌졸중, 뇌종양, 뇌막염과 같은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두통이 갑자기 시작한 경우, 운동이나 숨을 참고 힘을 주는 행위나 서 있을 때 더 악화되는 두통, 평소에 두통이 있었더라도 두통의 빈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강도가 심해지고, 두통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한 경우, 의식 소실이나 발작이 동반된 경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차성 두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편두통

편두통은 15~55세에서 주로 발생하고 여자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더 많다.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생리를 시작할 무렵부터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편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은 머리 한쪽에서 마치 심장 박동이 뛰는 듯한 두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환자에서는 머리 양쪽 모두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약 15~20%의 환자는 두통이 생기기 전에 눈 앞에서 불빛이 번쩍이거나 특이한 점이나 곡선이 보이는 ‘시각 전조’ 혹은 손, 얼굴 감각이 이상해지는 ‘감각 전조’와 같은 전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두통이 생길 때,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되며, 두통이 심할 때는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방 약물이나 급성기 약물로 두통을 조절할 수 있다. 편두통 환자가 2~3개월 예방약을 복용해서 효과를 보면 약을 끊고도 두통 없이 지낼 수 있다.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의 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이다. 흔히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나며, 주로 뒷머리와 뒷목이 뻐뻐하면서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 때로는 앞머리와 관자놀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편두통에 비해서는 진통제에 반응이 더 좋다. 자세로 인해 긴장성 두통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워서 혹은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오래하거나, 나쁜 자세로 TV 시청을 오래하는 경우, 머리와 목 주변의 근육의 경직을 유발하여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진통소염제를 일차적으로 사용하나, 우울증이나 근육이완제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군집성 두통

군집성 두통은 젊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두통이 한쪽 앞머리와 눈 주변에 나타나고 통증이 있는 쪽으로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한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산소를 흡입하거나 콧 속에 국소 마취제를 뿌려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두통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두통환자의 생활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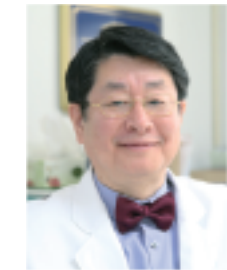
편두통의 환자의 경우, 술, 커피, 수면부족 등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주와 카페인 제한 등이 필요하다. 특정 음식이나 환경 등이 두통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통 일기를 작성하여 어떤 음식이나 환경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고 이러한 음식과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바른 자세 등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요법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두통은 신경과 외래를
찾아보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계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구안와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김 갑 성 교수

전문진료분야
안면마비, 목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어깨 무릎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금 오후 » 화, 수, 금

문의
침구과 외래 031·961·9115

일상생활 중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얼굴의 어느 한쪽으로 마비가 시작되어 안면의 근육이 한쪽으로 당겨지면서 눈이 잘 안감기고 입술이 뺨뺨어지는 안면마비가 발생한다면 적지 않게 당혹스러울 것이다. 안면의 근육은 좌우 양측이 동일한 근력으로 균형있게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한 쪽으로 마비가 오면 마비된 쪽 근육이 힘이 약해져 건강한 쪽으로 끌려 가는 양상을 보이므로 한의학에서는 일명 ‘구안와사’라고 한다.

구안와사란 입구(口) 눈안(眼) 입뺨뺨어질 괄(喎 : 와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경사질 사(斜)하여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뺨뺨어진 얼굴의 형상을 표현한 병명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저작된 『황제내경:경근편』에도 ‘구벽(口僻)’이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을 만큼 인간과는 친숙한 질환이며, 중국 송대(宋代)에 저술된 『삼인방』에서 처음으로 ‘구안와사’라는 병명으로 호칭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그 원인을 음주 후 찬 곳에서 누워 자거나 또는 풍한의 냉기에 의한 경락의 기혈 순환 폐쇄로 야기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남녀노소, 계절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관심의 대상이다.

안면마비는 크게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구분한다.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 대부분 머릿속 뇌 부위의 선행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야기되는 증상인데 반해서 말초성인 경우는 뇌질환과는 관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의 표정근을 지배하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마비가 초래되는 질환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로와 피로 누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적체 등이 일차적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마비가 눈 아래에서만 진행되는 중추성과는 달리 말초성인 경우는 얼굴 반쪽 전체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으므로 뇌 MRI나 CT같은 특수 검사를 하지 않고도 감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초성이라도 동일한 부위에 재발이 되었다면 청신경초종과 같은 질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MRI와 같은 특수 검사가 필요하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는 안면마비 환자의 대부분은 말초성으로써 영국의사 Charles Bell경의 이름을 따서 일명 Bell 마비라고도 한다. 안면마비라는 안면신경의 주행 노선상의 어느 신경 가지에 마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10여 일 길게는 1년 이상의 회복기간을 필요로 한다. 발병 환자의 약 70%는 안면 부위에 분포된 고삭신경이나 유양근으로 가는 가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안면마비 외에도 마비된 쪽 혀의 약 2/3 정도에서 미각의 감퇴나 소실이 나타나고, 침 분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입안이 마르고 갈끄럽다는 호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위의 신경 손상은 특별히 환자의 연령이 고령이거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 이상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등골근으로 가는 분지나 귀 안쪽의 슬상신경절 부위에 마비가 오는 경우 청각이 과민해지거나 귓속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환자의 기대감과 달리 4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회복 기간을 요하며, 자칫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귀 주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나 중이염 등이 1차적인 선행

원인이었다가 치료의 말미에 갑자기 귀 안쪽의 신경절로 침범이 되어 야기되기도 하므로 이런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유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synkinesis movement(일명 연합운동)라고 하여 하품이나 음식을 씹을 때 눈꼬리나 눈밀이 입쪽으로 당겨지는 현상과 같은 이상 현상이 병발하여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슈발리에 운동법 같은 연합운동을 예방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안면신경마비의 한방적 치료는 거풍통락시키는 침치료와 활혈행기의 사혈요법을 통하여 신경 주위의 혈류를 개선하여 혈행을 원활히 도모하여 줌으로써 신경 재생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치료의 초기에는 풍사를 제거하고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이기거풍산’이나 ‘견정산’과 같은 한약을 투여하여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도 한다. 동국대학교병원의 경우 한·양방 협진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초기 발병 시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관련검사와 양약 복용을 병행한다. 3주 이상 경과가 진행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표정 운동을 유도하여 각각의 표정을 주관하는 주동근에 대한 세밀한 침 치료와 안면의 비대칭을 예방하는 안면 균형 미용침을 동시에 시술한다. 침 치료 시에는 지속적인 경도의 자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주파 전류를 이용한 전침 자극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선택적 방법으로 봉독과 같은 약침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연합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 운동 방법으로는 구강 안쪽 볼을 헛바닥 끝으로 움직여 볼살 안쪽의 마사지운동을 시켜주는 방법과 햇볕에 노출 시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글라스 착용, 대화 시 양쪽 안면의 균형이 유지되게끔 노력해야 하며, 눈을 뜬 채로 음식물 씹기, 눈 주위 근육의 경직을 예방하기 위한 이완요법으로 스트레칭 운동 등을 병행할 수 있다.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 연합운동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 시기는 약 3~4개월이며, 신경의 손상이 심하여 회복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

안면의 근육은
좌우 양측이 동일한 근력으로
균형있게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한 쪽으로 마비가 오면
마비된 쪽 근육이 힘이 약해져
건강한 쪽으로 끌려 가는
양상으로 보이므로
한의학에서는 일명
‘구안와사’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우리 불가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차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는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 대화의 질까지 높여주지요. 지금 제 옆에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차향이 우리를 행복이라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지요, 각자는 자기가 행복이라고 믿고 선택한 길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후회와 다짐을 반복하면서 걷는 그 길의 끝은 행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국 수나라 때 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나병으로 오랫동안 몹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곤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헤가대사라는 도력 높은 스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도사 스님을 찾아가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 과거의 죄를 참회시켜 주시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가 스님이 “그대가 죄가 많아서 병을 앓는다 하니 그 죄를 내놓아보시오. 그럼 내가 참회시켜 주겠소.” 많은 죄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몸을 뒤져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끙끙거리다 “죄를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습니다.”하자 헤가 대사께서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다.” 하십니다.

거사가 생각해보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온갖 죄업을 지금까지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찼습니다. 거사님은 헤가 대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서 죄가 생겨났고, 마음이 사라지자 죄도 함께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쉼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병든 몸, 건강한 몸이란 분별이 없어진 무병장수(無病長壽)의 법을 깨달아 병이 나았습니다. 헤가 대사는 선종의 2조이고 거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출가하여 헤가 대사로 부터 법을 전수받은 3조 승찬 대사입니다.

낫기 어려운 나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이 마음이란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비법(秘法)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가 문제겠지요. 승찬 대사는 당신의 깨달음을 표현한 신심명(信心銘)이란 선시(禪詩)를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至道無難 (지도무난)이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고
唯嫌揀擇 (유협간택)이니	오직 간택을 싫어할 뿐이다.
但莫憎愛 (단막증애)하면	다만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않는다면
洞然明白 (통연명백)하리라.	환하게 밝아 명백하리라.

‘지극한 도’란 가장 멋진 삶, 가장 마음에 그리는 삶, 즉 가장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간택’이란 가리거나 선별해서 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간택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환하고 밝아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계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은 좋고 싫음을 따릅니다.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주관적인 잣대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를 가려서 좋아하고 싫은 마음 을 내어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립니다. 잠시 잠깐도 시시비비(是是非非)와 분별(分別)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과거의 일까지 꼬집어내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지혜를 덮어버려 어리석게도 스스로 불행을 끌어옵니 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는 십만팔천리나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이나 하듯이 출가 전 승찬 대사는 나병에 걸린 극도로 불행한 상황에서 헤가 대사의 “너의 죄를 내놓아보아라.”라는 한마디에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불행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에게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음과 죄가 둘이 아니고 둘 다 텅 비어있음을 알아버리면, 없는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일으킬 일도 없을 것이고, 마음이 일지 않으니 시시비비와 분별도 없어 지혜가 밝게 드러나니 항상 행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명성(明星) 큰스님

청도 운문사 회주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서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 운문승가대학 원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평생 좌우명은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게 살라.'이다.
저서에 「초능변식의 연구」, 「불교학논문집」,
역서로 「구사론대강」, 「화엄학개론」,
편서로 「사미니율의」 등 다수가 있다.

동백향 따라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미 황 사

깊은 밤의 틈으로 어둠을 뚫고 서슴없이 달려가는 차에 몸을 싣고 강진으로 향한다. 아직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 사이로 들어오면 움츠리게 되는 날씨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봄의 전령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설렌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어두운 밤의 풍경을 빠르게도 스쳐간다. 여러 가지 생각에 어둠만큼이나 깊은 상념에 빠진다. 아니 그런 졸로만 알았다. 흔들거리는 장단에 맞춰 나도 모르게 덜컥 잠에 빠진다. 한없이 무거워진 눈꺼풀을 간신히 떠보니 어느덧 강진에 들어서 미황사로 들어가는 입구. 기지가 한 번 늘어지게 펴고 걷는다. 미황사를 들어서는 입구에서는 사찰 내부의 가람배치를 가능할 수 없다. 자하루 너머는 깊은 자루에 숨겨진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자하루를 통해 계단에 올라서니 이제야 미황사의 전체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인 미황사의 대

웅전이 눈앞에 자리 잡고 그 너머는 달마산이 사찰을 감싸 안듯이 뒤로 흐른다. 자연적 풍경과 사찰은 그렇게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모습으로 어우러져 있다.

미황사는 땅끝에 위치한 사찰임에도 과거 불교의 요람이 되어 크게 융성하던 사찰이다. 미황사 사적비에 따르면 신라시대 749년에 지어져 조선시대까지 융성함을 유지하다 백여 년 전부터 퇴락했다. 급기야 문화재로 지정된 1988년 무렵에는 주인이 없이 비어 있기까지 했다. 대웅전 등의 문화재 지정 이후 여러 스님의 노력으로 미황사는 현재 다시금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황사의 대웅전은 단청이 없는 참으로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이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는 남도 답사 일번지를 이야기하며 무위사의 극락보전과

수덕사의 대웅전의 면분할에 대하여 단정한 맛을 이야기한다. 미황사 대웅전의 측면을 바라본다. 서로 건축적인 양식은 다르지만 여기도 그것 못지않은 단정스러운 멋이 살아 있다. 그런 단아한 미황사를 돌로 만든 튼튼한 병풍과도 같은 달마산이 둘러싸고 있다. 한눈에 봐도 날카로운 면을 가진 강건한 모습의 산이다. 시간이 허락되면 달마산 자락을 걸어 도솔암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달마산 정상의 코스는 꽤 험하지만 도솔암으로 가는 코스는 '땅끝천년숲옛길'의 일부로 경사가 완만하다. 미황사에서 도솔암까지는 왕복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걷는 것이 불편하다면 산자락을 돌아 도솔암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른 봄에 미황사를 찾는 이유가 있다. 바로 사찰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동백나무 동산 때문이다. 가끔 봄의 전령이 너무 빨리 찾아왔을 수 있다. 반대로 나뭇가지의 꽃들이 아직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경우도 많다. 꽃내음 따라 떠나는 여행은 예측불허다. 꽃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발길을 달기가 무섭게 떨어지는가 하면 가는 길에 후두두 저버리기도 한다. 미황사의 동백이 피어나는 시기를 못 맞춘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 아쉬움은 미황사의 대웅전(보물 제947호), 응진당(보물 제1183호) 등의 아름다운 사찰 건축물들이 달래준다.

미황사를 방문하면 대웅전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꼭 살펴보자. 이 주춧돌에는 게와 거북이 등의 육지의 것이 아닌 바다의 것들이 조각되어 있다. 이 조각을 보면 미황사가 백여 년 전에 갑작스레 폐사지로 바뀐 사연이 떠오른다. 당시 미황사에는 몇십 명에 달하는 스님과 꽤

큰 재산이 있던 절이었다. 하지만 더 큰 중창불사를 벌이기 위해서 스님들이 궁고(해남 지방에서 농악을 청하는 말)를 준비해 해안을 돌며 공연을 하며 시주를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완도와 청산도로 공연을 하러 가던 길에 폭풍을 만나게 된다. 결국, 배가 침몰하여 한 명의 스님을 제외하고 모든 스님이 사고를 당했다. 그 이후 미황사에는 사찰을 돌보기 힘든 노스님들과 빛만 남았기 때문에 그 찬란하던 역사가 무색하게 급격한 쇠퇴를 맞이했다. 미황사의 주춧돌은 훗날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에게 '과하면 없느니만 못하다'면서 바다를 조심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남겨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

주변 여행지

다산초당과 백련사 » 미황사로부터 약 30km 남짓 떨어져 있는 다산초당과 백련사는 행정구역상 강진에 속한다. 미황사에서 동백향을 제대로 말지 못하였다면 백련사로 잠시 발길을 돌려보길 권한다. 다산초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펼쳐진 '뿌리의 길'은 매우 인상적이며, 백련사로 걸어가는 숲길에 위치한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일품이다. 정자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 강진만과 그 너머 강진군의 천관산이 펼쳐진다. 백련사의 동백림은 천연기념물로 개화시기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이다.

대흥사 » 미황사로부터 약 30km 남짓 떨어져 있는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22교구 본사이다. 미황사는 대흥사의 말사이므로 미황사를 방문하면서 같이 둘러보는 것이 좋다. 대흥사는 해남의 두륜산에 위치한 규모가 매우 큰 사찰이다. 국보 1점과 보물 9점이 있는 대흥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서산대사의 부도와 유물 등을 문화재로 보관하고 서산대산유물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천 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의 뿌리가 하나가 된 연리근이 인상 깊다.

1. 백련사

2. 미황사 돌부처
3. 5. 다산초당 뿌리의 길

4. 6. 미황사 사적비





봄 향기 가득, 몸과 마음을 깨우는 藥이 되는 절밥이야기

〈약〉

예로부터 절에서는 공양을 준비하는 일,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는 일, 그리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과정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행하여 왔다. 절에서 하는 공양에는 음식이 만들어 나오기 전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골고루 나누어 먹는 마음과 절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또한 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고, 골고루 섭취하며,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겨우내 묵은 재료들로 공양을 준비했다면 봄엔 쫄쫄 인 땅을 뚫고 올라온 파릇하고 활기 넘치는 냉이, 원추리, 씀바귀, 쑥 등의 봄나물로 공양을 준비한다. 봄에 나는 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 따스한 봄볕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춘곤증을 떨치는 데 봄나물 만한 것이 없다.

냉이는 비타민C와 칼슘, 철분이 풍부하여 고혈압, 당뇨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허약체질인 여성에게도 도움이 된다. 냉이는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삶아서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양념으로 무치기도 하고, 된장찌개나 국을 끓이고, 죽도 쭉어 먹는다. 또 말려서 차로도 마신다.

봄에 진관사에서는 여러 가지 봄나물로 죽을 쭉어 아침 공양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냉이죽은 향과 빛깔이 곱고 소화가 잘 되기에 자주 상에 올린다. 냉이는 뿌리가 너무 곱고 질기지 않은 것이 좋으며 잎이 짙고 향은 진한 것이 좋다. 봄에 먹는 냉이죽 한 그릇은 봄기운 가득한 약과 같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곧 수행이다. 그래서 사찰음식은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수행을 통해 나오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고 지고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은 여기, 사찰음식에 눈여겨 새겨 볼 만한 일이다. ●

RECIPE



● 재료

냉이 200g, 멥쌀 2컵,
냉이 삶은 물 8컵, 참기름 1T,
불린 표고버섯 1개, 소금 약간

● 만드는 방법

- ① 냉이는 손질하여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삶은 물은 준비해 둔다.
- ② 멥쌀은 깨끗이 씻어 불린다.
- ③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멥쌀과 표고버섯을 넣고 달달 볶다가 냉이 삶은 물을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멥쌀이 퍼질 때까지 주걱으로 저어 주면서 끓인다.
- ④ 죽이 끓으면 냉이를 넣어 살짝 끓여준다.
- ⑤ 그릇에 냉이 죽을 담고 고명을 올려준다.



계호(戒昊) 스님

서울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
전국비구니회 수석운영위원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진관사는 사찰음식, 국행수륙재, 템플스테이 등
전통불교문화의 향훈을 간직한
도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건강장수를 위한 명약 경옥고(瓊玉膏)

한약 처방들 중에는 그 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긴 처방들이 여럿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출산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불수산(佛手散), 요통에 귀신같이 효과가 있다는 여신탕(如神湯). 경옥고 또한 아주 귀한 구슬과 옥처럼 가치 있는 고약(膏藥)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 이름은 옛날 황제(黃帝)가 곤륜산(崑崙山)에서 나오는 꿀 같은 옥액을 상식(常食·늘 먹음)하여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경옥고는 신철옹(申鐵瓮)이라는 사람이 인삼·생지황·복령·꿀 등 4가지 약물로 만들어 마른기침에 사용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 효과가 크다 하여 이후 많은 후대 의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명방으로 알려졌으며, 동의보감에 수록된 첫 번째 처방이기도 하고, 양생을 통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처방으로 수록되어 있다.

경옥고는 그 제조과정에서부터 큰 정성을 필요로 한다. 인삼, 생지황, 백복령, 꿀을 한데 고루 버무려 사기항아리에 넣고 기름먹인 종이와 베천으로 단단히 봉한 다음, 뿔나무장작으로 3일 동안 불을 때며 중탕으로 달인다. 물이 줄아들면 조금씩 채워 넣으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한다. 물속에 하루 동안 담가 식혔다가 다시 하루를 달인다.

완성된 경옥고는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야 먹을 수 있고, 닭과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 두어야 하며, 부인이나 상복 입은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허황되고 미신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당시 경옥고를 얼마만큼 귀한 것으로 여겼는지 엿볼 수 있다.

경옥고의 최초 치료목적 증상은 마른기침이었다. 폐에 생긴 화열(火熱)로 인해 폐의 진액(津液)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상황에 쓰였던 약으로, 많은 의서에 경옥고가 실리게 되면서 내용 또한 점차 풍부해졌는데, 한편으로는 다소 과장된 내용도 더러 붙었다. 명나라의 명의 이천은 그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精)과 수(髓)를 보충해주고 진기(津氣)를 고르게 하며 원기(原氣)를 보하여 늙은이를 젊어지게 하고 온갖 병을 낫게 한다. 또한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진다.’

그리고 그 약명의 사전적 의미를 도교 경전인 황정경(黃庭經)에서 찾아보면, 경은 경실(瓊室), 뇌를 가리키며 옥은 옥정, 옥액으로 쿠팡 신장에 간직한 샘이다. 즉, 인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되는 정(精)과, 그 저장소가 되는 뇌와 신장을 기르는 것이 양생의 근본인데, 이로써 경옥고의 효능이 말라버린 폐를 적셔주는 것에서 나아가 전신의 결손을 채워주는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다양하고 엄청난 효능이 아예 의미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최근 실험실과 임상에서의 연구들은 경옥고의 이러한 효과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골다공증 같은 골소실 증상, 발모촉진, 성장 및 학습, 피로회복과 면역체계 등의 기능개선, 피부 노화 억제, 항산화 활성산소 증가를 통한 노화억제, 폐에 작용하여 항종양 및 항결핵 효과, 유산소능력 향상을 통한 피로감소 등의 임상적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경옥고의 임상적 활용 적응증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처방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경옥고는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성인의 경우 1회 1~2숟가락씩 온수에 타서 1일 2~3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한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용량이 되도록 조절하도록 한다. 쇠와 닿으면 약성분이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과 복용시 쇠그릇이나 쇠숟가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록 27살부터 먹기 시작하면 360살까지 살 수 있고, 64살부터 먹기 시작하면 5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옛 문장은 수많은 황제들이 흠으로 돌아간 지금 빛을 잃었지만, 천년의 역사, 수많은 의가들의 선택을 받았던 연년익수의 성약(聖藥) 경옥고를 통해 마르고 지친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직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



경옥고(瓊玉膏)

만성피로 개선, 수험생 건강증진, 면역기능 활성화, 노인병 치료보조, 일반건강증진 등의 상용 보양제로써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강골경옥고(強骨瓊玉膏)

강골경옥고는 일반 경옥고의 효능에 근골격계 보양, 골다공증 예방, 척추관절 질환 치료 효능을 더한 보양제입니다.



여원경옥고(女元瓊玉膏)

여원경옥고는 일반 경옥고의 효능에 여성내분비 기능강화, 갱년기 증후군, 불임증 치료 및 예방 효능을 더한 보양제입니다.



경옥단(瓊玉丹)

경옥단은 직접 조제한 경옥고를 환약의 형태로 만들어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7000 한방약국 031·961·9130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710·3719 한방약국 031·710·3750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748·9300 한방약국 054·770·126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와 우리를 지키는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맞아야 하나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2종, B형 1종을 포함하고 있는 3개 백신으로, 해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해 가장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바이러스 3종을 포함해 제작한다. 그러므로,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는 주로 12월 말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9월에서 10월 초에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는 독감백신이 접종 후 2주 이상이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며 그 효력은 6개월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감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 환자들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두 가지의 폐렴 예방접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국내 도입된 성인 폐렴구균백신은 13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과 23가 폐렴구균 다당질백신 두 종류가 있다. 20여 년 전 개발된 다당질백신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무상 접종해 왔지만 폐렴 발생이 줄지 않았고, 특히 만성질환이나 면역저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단백결합백신은 다당질백신에 비해 면역 반응과 면역기억력을 높여 만성질환자(만성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병, 알코올중독, 만성간질환)나 면역저하자(HIV 감염, 만성신부전, 백혈병, 림프종, 장기이식환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복용 환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이 추천된다.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의 경우 기존에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했던 다당질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13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이 권고된다. 기존에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단백결합백신을 접종한 이후 6~12개월 사이에 다당질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된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한 번만 받아도 평생 안 걸리나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걸렸던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절을 따라 생긴다. 최선의 예방법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되는 50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백신은 대상포진은 50%, 신경통은 60% 정도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으며, 신경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대상포진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은 7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접종이 필요하진 않다. ●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예방주사를 몇 살쯤 맞으면 좋을까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대한 예방 백신이다. HPV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이며 감염 후 바이러스는 소실되지만 고위험형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다. 시판 중인 두 백신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15가지 발암 HPV 중 16형과 18형 2가지로 인한 암을 예방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경험을 하기 전 여성에게 우선 접종한다. 기존에는 3회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가다실과 서바릭스 모두 소아에게는 3회가 아닌 2회만 접종해도 되도록 기준이 낮아졌으며, 가다실은 9~13세 남녀, 서바릭스는 9~14세 여아에게 2회만 접종해도 된다고 국내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WHO도 이달 초 발표한 새 지침에서 9~13세 여아는 2회만 접종 받도록 권고했다. ●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똑같은 백신을 접종 받으면 안 된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면역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생백신, 수두나 홍역·볼거리·풍진(MMR)은 접종받으면 안 된다. 이는 면역저하 환자들에서 생백신을 투여 받은 후 이 백신에 의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급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증세가 충분히 회복된 후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 다만, 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라면 예방접종을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50%)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50%)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5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11. 1 ~ 2015. 1. 31

명성 큰스님	₩20,000,000	류 경 현	₩1,918,660	황 정 희	₩1,449,480	서 찬	₩1,091,570
보각 스님	₩10,000,000	이 영 수	₩1,886,200	임 중 대	₩1,433,680	이 정 화	₩1,078,800
영진 스님	₩10,000,000	박 영 근	₩1,808,260	박 숙 희	₩1,380,000	이 애 영	₩1,001,600
메 디 코	₩5,078,000	김 민 호	₩1,783,000	신 익 섭	₩1,380,000	대한의료사회 복지사협회	₩1,000,000
조 남 현	₩5,000,000	강 이 일	₩1,750,910	김 현 정	₩1,365,000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	₩1,000,000
지 영 한	₩3,129,810	이 용 석	₩1,609,490	이 원 호	₩1,364,500	이 명 규	₩1,000,000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충남지회)	₩3,000,000	박 현 미	₩1,560,000	김 상 규	₩1,230,000	이 재 정	₩1,000,000
김 형 수	₩2,017,140	한 성 우	₩1,514,420	정 이 선	₩1,183,750	노 태 훈	₩1,112,200
청소년문화가족	₩2,000,000	유 동 근	₩1,500,000	김 용 배	₩1,157,170		
		한국실명예방재단	₩1,500,000				

강금순	권기현	김팔영	김수아	김정목	김혜영	박 관	박재현	백지현	신동환	여정석	윤상도	이상환	이일수	이현경	정태영	정운영	조은정	최상돈	한기화
강기순	권도윤	김명규	김수정	김정미	김혜정	박기욱	박재효	변재욱	신명수	여취경	윤상호	이상훈	이자경	이현경	장하리	정원기	조인선	최석예	한도연
강도림	권동현	김명숙	김수정	김정미	김혜정	박재희	박재희	변해수	신미정	장형렬	윤소영	이상희	이재경	이현주	장형렬	정윤정	조임새	최성규	한명희
강동오	권미정	김명희	김수정	김정미	김혜정	박동우	박동진	사미선	신석재	장재진	윤승인	이재우	이재우	이현주	장재진	정윤정	조 현	최성미	한미진
강미소	권법선	김무총	김수향	김정배	김혜정	박동진	박동진	사현지	신성준	장호근	윤여진	이재우	이재우	이현희	장호근	정은경	조현석	최소영	한소연
강병경	권병철	김문식	김순기	김정숙	김혜진	박영조	박종민	서미경	신승민	장홍기	윤영순	이선아	이재향	이현경	장홍기	정은주	조현석	최수진	한송이
강보라	권보경	김미경	김순현	김정연	김효준	박미순	박종현	서상연	신연실	전나아	윤용대	이선영	이재환	이혜경	전나아	정은지	조현선	최연주	한영희
강보민	권상숙	김미경	김미경	김지연	김화평	박미연	박주영	서상일	신영식	전다송	윤정미	이선영	이재희	이혜근	전다송	정은지	조현아	최영아	한용수
강상훈	권상애	김미성	김아람	김정연	김효정	박미형	박주현	서영미	신영주	전두호	윤정분	이선희	이정미	이혜숙	전두호	정인수	조현우	최영운	한윤희
강석진	권성옥	김미숙	김아름	김정은	김효주	박보경	박준형	서영환	신윤주	전미은	윤정수	이 설	이정백	이혜영	전미은	정인영	조혜원	최영진	한은숙
강석진	권소연	김미숙	김아름	김정형	김희동	박상용	박종희	서영진	신윤희	전보람	윤정순	이소라	이정연	이호석	전보람	정인원	조혜정	최영택	한은숙
강선영	권순태	김미숙	김안나	김정훈	김희선	박상은	박지숙	서 은	신은정	전소라	윤정순	이소영	이정우	이호준	전소라	정재우	조해진	최용환	한은숙
강선주	권신영	김미영	김미영	김종만	김희섭	박석원	박지현	서은정	신은희	전수현	윤 태	이소영	이정임	이호진	전수현	정재현	조해진	최원경	한인용
강소영	권오형	김미영	김민선	김종은	김희영	박선양	박지혜	서 준	신진경	전숙진	윤형근	이수라	이정하	이희용	전숙진	정주완	조해진	최원용	한정훈
강수영	권윤경	김미옥	김영권	김종화	김희진	박선영	박지홍	서준석	신현오	전인숙	윤혜진	이수은	이정하	이희은	전인숙	정지애	조효순	최유나	허남탁
강연주	권일진	김미진	김영미	김진숙	나경란	박진숙	박진숙	서희경	신혜란	전종병	윤효영	이수철	이정하	이희주	전종병	정지영	조희근	최유인	허병철
강예은	권재현	김미현	김영미	김주현	나소영	박성림	박진우	서희주	신효숙	전주영	이강현	이수현	이정혁	이희진	전주영	정지원	최근사	최주정	허은경
강은경	권정국	김미희	김영복	김주희	나용용	박성식	박창훈	석상원	심문주	전진영	이강훈	이수환	이정현	인승순	전진영	정지유	주미향	최윤영	허정재
강은미	권정옥	김민선	김영은	김지나	나정용	박성연	박철중	심미나	오지윤	전진희	이경미	이순애	이정훈	인준용	전진희	정지현	주봉림	최은영	허정현
강은정	권준석	김민아	김영은	김지예	나 현	박성원	박준근	석진희	오진숙	정경숙	이경미	이순옥	이정희	임근일	정경숙	정지혜	주성재	최은정	허 준
강인선	권지윤	김민영	김영진	김지현	남기현	박성주	박현수	설한미	오진영	정경희	이경애	이순옥	이정희	임나현	정경희	정진희	주은명	최은주	허하림
강정옥	권태용	김민정	김영진	김지윤	남민영	박성주	박현숙	성경숙	심혜정	정경윤	이광욱	이종득	이종득	임동욱	정경윤	정철민	주주환	최은호	허희진
강지영	권혁미	김민호	김영진	김지현	남세영	박성혜	박현영	성낙진	심희선	정태민	이광훈	이순희	이종은	임동주	정태민	정태민	주지연	최인영	현미숙
강지혜	권현주	김민희	김영철	김지현	남소미	박세원	박현정	성종순	아름다	정하영	이구술	이승덕	이종창	임민주	정하영	정하영	조희진	최인주	형 욱
강현우	권해림	김방희	김영현	김지혜	남유화	박세원	박현주	성효은	윤재단	정기찬	이귀숙	이승민	이종찬	임민혜	정기찬	정한숙	진경애	최재희	홍경희
강희구	권효숙	김병철	김영혜	김지호	남재은	박세환	박현주	소전기	안가혜	정철식	이규섭	이승옥	이종하	임선화	정철식	정혁수	진선희	최정민	홍민재
강유영	권희정	김보미	김영화	김지환	남현미	박소기	박현주	소전기	안광상	정현주	이규옥	이승철	이종영	임선희	정다송	정현주	진영숙	최정숙	홍민희
경보호	권희재	김보연	김옥선	김지훈	남혜경	박소정	박혜진	소은숙	안대호	정다영	이규홍	이승철	이주은	임성우	정다영	정현주	진영조	최정현	홍병진
고기연	금동호	김보영	김용서	김진규	노미경	박소희	박혜진	소은진	우소희	정혜은	이근영	이주현	이주현	임성진	정다윤	정혜은	진효재	최정현	홍보람
고기환	김정은	김보은	김용숙	김진아	노미숙	박송주	박혜진	소정자	안민아	정명희	이나현	이승호	이주현	임성희	정명희	정혜은	차수남	최정화	홍성희
고문수	김가영	김사라	김우경	김진영	노은정	박수복	박혜진	소행연	안선영	정미라	이남영	이민재	이주형	임세원	정미라	정혜진	차록련	최종기	홍수민
고민정	김갑성	김삼기	김원영	김재영	노주원	박수혁	박현정	소귀득	우정숙	정미선	이남주	이매영	이주희	임수완	정미선	정호근	채기수	최종민	홍승관
고성웅	김경민	김상균	김유나	김 철	노혜진	박수희	박효진	소금영	안소원	정미숙	이다혜	이연희	이준규	임영혜	정미숙	정효진	채보희	최주은	홍승옥
고수정	김경수	김상섭	김유일	김철주	노현규	박수희	박희영	손기원	안선영	정민기	이동백	이영실	이준길	임윤복	정민기	정희경	채석래	최준권	홍유선
고예나	김경아	김상아	김유정	김지선	도한호	박순기	방대혁	손민정	안연순	정보경	이동영	이영찬	이지삼	임윤성	정보경	정희정	채송아	최준서	홍은기
고완영	김경옥	김성필	김윤정	김태규	류기영	박순양	방영민	손수원	안영길	정사라	이말보	이용석	이지선	임윤성	정사라	정희진	채은미	최준용	홍은수
고은미	김경호	김상환	김윤주	김태균	류대안	박순자	방정아	손은미	안정선	정상옥	이연경	이용우	이지성	임윤희	정상옥	조광용	천만중	최진영	홍은희
고은하	김경희	김새롬	김윤지	김태선	류봉하	박순선	방현선	손정근	안주향	정석화	이명규	이용찬	이지연	임은정	정석화	조근대	천보혜	최창익	홍이내
고은희	김관영	김서영	김윤진	김태숙	류위선	박신남	배경인	손정민	안지은	정선미	이명숙	이윤경	이지연	임중수	정선미	조기환	천예연	최한기	홍주혜
공성화	김광기	김선경	김윤창	김태영	류윤호	박신애	배기향	손정은	안지현	정선희	이명숙	이원용	이지연	임하연	정선희	조다현	천은스님	최한석	홍지수
곽경아	김국현	김선용	김윤리	김필자	류주희	박아름	배려아	손정화	안창현	정세연	이명총	이원희	이지연	임하영	정세연	조동삼	최경아	최해송	홍지혜
곽민정	김균영	김선주	김은미	김하겸	마주희	박아연	배미정	손종석	안현미	정세희	이명희	이유나	이지영	임현민	정세희	조민아	최경희	최해용	홍호진
곽법석	김근우	김선희	김은순	김하나	모종은	박영미	배병호	손종은	안현정	정소영	이무용	이지영	이지영	임현철	정소영	조민주	최규형	최현미	황동철
곽필화	김길남	김선희	김은아	김해민	무구스님	박영진	배상만	손주영	안희덕	정숙희	이문정	이윤정	이지은	이현진	정숙희	조민지	최나림	최해숙	황민혜
곽현영	김남열	김선희	김은영	김해인	문상원	박원식	배상원	손희진	양경숙	정순탁	이미희	이윤상	이지은	자비나	정순탁	조민철	최동준	최해정	황보미
곽현재	김남희	김성권	김은정	김해정	문선희	박용진	배수현	송동현	양명환	정승은	이미희	이윤석	이지현	남세상	정승은	조상은	최동훈	최희정	황보미영
곽희경	김다인	김성아	김은주	김현덕	문현희	박유경	배윤상	송미리	양승엽	정승택	이민선	이윤정	이지혜	장대현	정승택	조상현	최명렬	추경란	황보수진
곽희재	김대봉	김성원	김은진	김현경	문효남	박유진	배은영	송우경	양유리	정승현	이민우	이윤형	이지혜	장미현	정승현	조상현	최문진	추경희	황세연
구기형	김대환	김성일	김은희	김현서	민경일	박은경	배재익	송은호	양재준	정승현	이민정	이윤희	이 진	장민욱	정승현	조선희	최문희	태성기	황윤정
구남이	김도연	김세린	김이겸	김현수	민상원	박은경	배정범	송좌근	양지영	정여진	이병기	이은경	이진호	장 승	정여진	조성만	최민선	표정옥	황인봉
구병수	김도현	김세린	김이수	김현관	민은지	박은경	배효상	송혜정	양지영	정연규	이병훈	이은미	이재원	장순희	정연규	조성민	최민아	피재일	황정아
구복식	김동수	김세민	김이재	김형석	민준혁	박은영	백선미	송화진	양철공	정연희	이보용	이은자	이재형	장연화	정연희	조승호	최민정	하민영	황지나
구수연	김동억	김세희	김이향	김형준	민 회	박은주	백선옥	신경민	양수라	정연희	이보순	이은진	이태영	장유민	정연희	이보순	최민정	하민영	황춘자
구순정	김동일	김소원	김민자	김형진	박경림	박일환	백송진	신경수	엄희경	정영애	이상경	이은주	이하영	장윤정	정영애	조용민	최병근	하정희	황태규
구준범	김동환	김소진	김필화	김혜경	박경문	박지혜	백용해	신길조	여강욱	정영옥	이상익	이은진	이혜원	장용재	정영옥	조유미	최보은	하준석	황해성
구효정	김동훈	김솔아	김혜미	박재경	박유진	박지영	백유진	신나리	여민영	정영희	이상현	이은하	이향민	장인규	정영희	조은영	최부성	한강민	
국종돈	김마르다	김수린	김재학	김혜연	박경혜	박재원	백윤정	신대규	여민혁	장충섭	이상형	이인화	이향미	장충섭	장충섭	조은영	최부성	한강민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동문 (입학년도 :)	☐ 불교계	☐ 교직원 대학(원) :	☐ 기업/단체 전공 :	☐ 기타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원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 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410-82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5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2. 01~2016. 11. 30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Spring | VOL. 2

4 1 0 8 2 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문리음호 권원 등유세
유세 극의제권 등목너

이곳에 풀칠하세요.

www.dumc.or.kr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 동국대학교의료원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 병원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1577. 7000
응급의료센터 031. 961. 7777
진료협력센터 031. 961. 8888
건강증진센터 031. 961. 7700
고객지원센터 031. 961. 7033
장례식장 031. 961. 9400

진료시간

평 일 09:00 ~ 12:00
13:00 ~ 17:30
토요일 09:00 ~ 12:3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 동국대학교 경주한의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054. 748. 9300
응급의료센터 054. 770. 8119
진료협력센터 054. 770. 8275
건강증진센터 054. 770. 1400~1
장례식장 054. 770. 8333

진료시간

평 일 08:30 ~ 12:30
13: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031. 710. 3700
접수 · 수납 031. 710. 3714~5
입원 · 병동 031. 710. 3753~6
응급실 031. 710. 3741
건강증진센터 031. 710. 3712/3781

진료시간

평 일 09:00 ~ 12:30
13:30 ~ 17:00
야간 17:30 ~ 20:00
토요일 09:00 ~ 12:30
13:30 ~ 17:0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